

홍천의 재발견, 홍천 여기를 가보자!

팔봉산

홍천강변에 솟은 여덟 봉우리 장관 관광객 북적



◇팔봉산 입구에 세워진 표지석과 팔봉산 전경



1980년 관광지 지정 산림청 100대 명산 선정 해발 327m지만 산행 만만치 않아 등산객 선호

팔봉산은 흔히 두 번 놀라게 하는 산으로 알려져 있다. 낮은 산이지만, 산세가 아름다워 놀라고, 일단 산에 올라보면 암봉이 즐지어 있어 산행이 만만치 않아 두 번 놀란다는 것이다. 주능선이 마치 병풍을 펼친 듯한 산세로 예부터 “소금강”이라 불리워질 만큼 아름다워 1980년에 관광지로 지정되어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다. 게다가 주능선 좌우로 산의 삼면을 홍천강이 둘러 흐르고 있어 정상에 올라서 바라보는 전망이 더 없이 좋으며 산행 후 물놀이도 겸할 수 있는 곳이다. 관광지 내에 풋살경기장이 있어 단체관광객의 체육행사를 할 수 있으며, 야외공연장을 설치 공연활동도 가능하다.

홍천강 맑은 물에 마음도 깨끗

홍천 팔봉산은 홍천강 중간쯤에 위치한 산이다. 크고 작은 여덟 봉우리가 형제처럼 솟아 있어 팔봉산이다. 이 산이 여름에 특히 인기가 높은 것은 홍천강이 산을 끼고 돌기 때문이다. 힘겹게 산행을 하고 난 후에는 홍천강 맑은 물에 땀을 씻고 피로도 흘려보낼 수 있다. 산림청에서도 8개의 암봉이 팔짱 낀 형제처럼 이어진 데다 홍천강이 어우러진 경관이 수려해 ‘100대 명산’에 선정했다.

- 주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산 225
- 전화 : 033-434-0813
- A코스 : 팔봉산주차장-팔봉교-매표소-1봉-2봉(327m)-3봉-4봉(해안굴)-5봉-6봉-7봉-8봉-매표소-물놀이-주차장 5km 5시간
- B코스 : 주차장-팔봉교-매표소-1봉-2봉(정상)327m-홍천강변-물놀이-매표소-주차장 3km 4시간

팔봉산은 해발 327m로 그리 높지 않다. 산 아래로는 홍천강이 유유히 흐른다. 팔봉산의 등산로는 매우 단출하다. 오르는 길은 1봉으로 가는 길뿐이다. 일방통행인 셈이다. 하산하는 길은 2봉과 3봉, 5봉과 6봉, 7봉과 8봉 사이 그리고 8봉을 넘어 이어진다. 산행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대부분 8봉을 모두 넘어서 내려온다.

1봉까지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 산이 낮기에 정상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다. 로프를 잡고 수직으로 솟은 암봉을 올라야 하니 순간적으로 짜릿한 전율이 느껴진다. 위험해 보이는데 등산객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거침없이 올라간다. 산 아래로는 홍천강이 휘감아 돈다. 강과 산의 완벽한 조화가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다. 각각의 봉우리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어 다음 목적지가 확연하게 눈에 들어온다.

1봉에서 2봉으로 가려면 암봉을 내려와 산길을 걷고 다시 암봉을 올라야 한다. 정상에는 삼부인당이 있다. 작은 규모의 이 당집은 이씨, 김씨, 홍씨 세 부인을 모시고 있다. 400여 년 전인 조선 선조 때부터 팔봉산 주변 사람들이 마을의 평온과 풍년을 기원하며 액운을 막는 당굿을 해오는 곳이라고 한다.

2봉을 내려와 3봉으로 가는 길에 사다리가 놓여 있다. 3봉에 오르니 산을 휘감고 도는 홍천강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물은 산을 넘지 못하고, 산은 물을 막지 못한다’는 말이 실감난다.

4봉은 해안굴을 통과해야 하는 팔봉산의 하이라이트 구간이다. 해안굴은 좁은 바위틈을 통과하는 어려움이 출산의 고통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바위틈을 통과할 때마다 좁아진다고 해서 장수굴이라고도 한다. 워낙 인기가 있어 주말이면 긴 줄이 늘어선다. 통과하는 재미를 만끽하려면 수고스러워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기다리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바위와 바위 사이를 연결한 다리를 건너면 된다.

4봉에 올랐으니 산행의 절반은 마친 셈이다. 그러나 남은 5, 6, 7, 8봉이 훨씬 위험하고 까다롭다. 암봉도 수직으로 솟아 있고, 발을 딛기 어려운 곳이 매우 많다.

7봉을 내려서 마지막 남은 8봉 앞에 서니 경고문이 시선을 끈다. 8봉은 가장 험하고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코스이니, 등산 경험이 많지 않거나 체력이 약한 사람은 이 지점에서 하산하라는 내용이다. 잠시 망설여지지만 7봉까지 힘겹게 온 것을 생각하면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8봉으로 오르는 길은 가파르지만 다른 봉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손잡이와 발받침을 설치해서 생각보다 수월하다. 하산 코스도 급경사이지만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다. 팔봉산은 암봉으로 이루어져 산행이 쉽지 않다. 바위를 잡을 일이 많으니 등산 장갑은 필수다. 팔봉산의 여덟 봉우리를 다 넘었다고 산행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코스가 남아 있다. 8봉을 내려와 출발장소인 주차장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홍천강을 따라 난 강변길을 걸어 매표소로 가서 팔봉교를 건너거나, 물에 뛰어들어 강을 가로지르는 것이다. 산을 내려오면 팔봉산유원지가 나온다.

조하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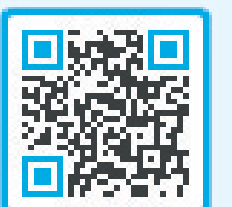
CONTENTS



02 - 살만한 홍천
03 - 4차 산업혁명시대,
이미 와 있는 미래

04 - 경로당 탐방 시리즈
05 - 스포츠 및 행사
게이트볼 시리즈

06 - 문화행사
07 - 자원봉사단체
08 - 독자칼럼, 인생칼럼



살만한 홍천**화촌면 장평리 조광우씨(63세)**

“어르신께 딱 좋은 홍천 ‘히카마’ 드시고 젊어 지세요”



◇홍천군 화촌면 장평리에서 멕시코 감자라 불리는 ‘히카마’를 재배하고 있는 조광우씨.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받고 ‘히카마’ 생산·가공·판매·유통망 개척

**귀농 3년 차, 10여 차례 교육수료 후
‘히카마’ ‘오크라’ 홍천 최초 재배 성공**

조광우씨는 화촌면 장평리에 거주하면서 내촌면 화상대리에 ‘한울림 농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농업에 전념하고 있다.

조씨는 3년 전 서석면 검산리 ‘홍천군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에서 9개월 간 229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이 교육을 받고 홍천에 귀농하기로 결심한 후 내촌면 화상대리에 2천 여 평의 농지를 마련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처음 시작한 농사라서 교육이 절실하여, 발효효소관리사 교육, 약용식물자원관리사교육, 임업후계자 교육, 임업소득증대 교육, 귀산촌 체험 교육, 산양삼 아카데미 교육 등을 이수하여 농사 기술을 습득하였다.

처음에는 강원도의 주요 보통작물인 찰옥수수 감자 고구마를 가꿨으나 노력에 비해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여 특수 작물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한국산림자원관리연구원’ 사무국장을 맡아서 회원들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조 씨는 특수작물을 재배하여야 판매의 길도 열리고 소득도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세계적으로 떠오르는 작물에 관심을 가지며 홍천에 토착화 시키기 위해서 찾아낸 품목이 멕시코 감자로 불리는 ‘히카마’였다.

**홍천 기후와 토질에 맞추려 다양한 실험
“피부미용·다이어트·당뇨에 탁월한 효과”**

‘히카마’는 칼로리가 낮고 섬유소가 풍부하며 비타민 C, 콜라겐 등의 함유량이 많아 피부미용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떠오르는 슈퍼 푸드로 각광받고 있다.

감자 맛과 순무 맛을 함께 내는 ‘히카마’는 날로 먹어도 좋고, 우유나 콩우유 발효유 등을 섞어 음료로 마셔도 좋다.

깍두기나 물김치 등 다양하게 조리를 할 수 있으며, 아린 맛이 없고 식감이 부드러워 특히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적당하다.

조 씨가 ‘히카마’를 처음 파종했을 때는 냉해로 인해 실패했다.

홍천의 기온이 일교차가 심하여 새벽 시간대에 23도의 유지가 안돼서 아열대 식물인 ‘히카마’가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면 쉽게 냉해를 피할 수 있으나, 빗물과 햇빛이 정상적으로 투과하지 못하여 맛과 영양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다.

갖가지 방법과 시기 등을 조절하며 재배 연구를 한 결과 홍천토양과 기후 환경에 적응한 우량 상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날로 먹는 채소인 만큼 농약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 청정 상품을 만들었다.

**한울림 농원 작물 바라볼 때 기쁨
매일매일 ‘살만한 홍천’서 행복 만끽**



◇조광우씨가 재배하고 있는 히카마.

조광우씨의 ‘한울림 농원’에는 다년생 작물인 황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황기도 간기능 개선 효능이 뛰어난 식품으로 인정받으며 인기가 치솟고 있다.

“홍천에 오기를 참 잘했다. 3년 밖에 안됐지만 내 고장 홍천에 정이 느껴진다. 서울에 살 때 알고 지내던 지인들에게 농산물을 택배로 보낼 때 홍천 자랑도 함께하며 귀농을 권유하기도 한다.”

내년에는 ‘한울림 농원’에 황기, ‘히카마’와 함께 ‘오크라’도 자랄 것이다. ‘오크라’는 아욱과에 속한 채소인데 풋고추 형태로 생겼다.

‘오크라’는 피로회복, 점막 보호, 변비 방지, 시력 보호, 뼈 강화, 당뇨 개선, 스트레스 감소, 소화 촉진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좋은 채소로 보인다.

조씨는 히카마, 오크라 등 특용작물 재배 기술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한국산림자원관리연구원’ 회원을 증원하여 연수를 하겠다고 했다.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멕시코 감자를 ‘홍천 감자’로 토착화 시키고, 아프리카 ‘오크라’를 ‘홍천 풋고추’로 토착화 시킬 꿈이 있어서 즐겁다고도 했다.

허남영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 이미 와 있는 미래

우리 앞에 다가 선 가상현실 (VR) 과 증강현실 (AR)

2015년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 혁명의 파고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고,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통해 전 국민도 비로소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래 혁명의 여러 기술들 즉,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자율자동차, 나노 기술, 3D프린팅, 드론, 핀테크, 공유경제,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 등인데, 당시 미래의 혁명적 기술로 여겨졌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현실이 되고, 곧 머지않아 실용화 및 상용화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기술 중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의 의미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상현실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HMD)'란 헤드셋을 머리에 쓰고, 사용자 주변을 차단하여 여러 장의 이미지를 보여주어 새로운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 몰입감을 극대화시켜 마치 실재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이다. 반면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에 바탕을 두고 위치정보시스템(GPS) 및 3차원영상이미지를 이용하여 가상의 것을 현실로 끌어와 보다 더 현실감을 주는 기술이다. 한때 인기를 끌었던 게임 '포켓몬 GO'가 그 실례다.

그러면 이러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이는 우선 게임이나 스포츠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많이 결합하고 있다, 사람들이 경험하고 싶으나 환경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을 때 이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더운 여름날 눈덮인 알프스 산 정상에 서 있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신나지 않을까? 그때 HMD를 쓰고 '알프스 산'이라 외치기만 하면 된다. 바로 눈앞에 설산이 펼쳐지는 놀라운 마법이 펼쳐지니까. 점점 싸늘해지는 요즘 HMD를 쓰고 또 외친다. '사이판' 나와라. 순간 바로 앞에 펼쳐지는 해변과 푸른 파도. 북극이나 남극을 탐험해보는 것을 어떨까? 혹은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문화와 문명을 골목골목을 누비며 여행하는 것은 멋진 일이 아닐까? 해저 깊은 곳의 풍경을 보는 일도 멋진 일이고, 축구경기 속으로 들어가 손흥민의 어시스트를 받아 멋진



가상현실

헤드셋을 머리에 쓰고 사용자 주변을 차단 여러장의 이미지를 보여 주어 새로운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 몰입감을 극대화 시켜 마치 실재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

증강현실

현실세계에 바탕을 두고 위치정보 시스템과 3차원 영상이미지를 이용하여 가상의 것을 현실로 끌어와 보다 현실감을 주는 기술

슈팅을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필자처럼 겁이 많거나 이제 나이가 들어 시도하기에는 어려운 갖가지 익스트림(Extreme) 스포츠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행글라이더 타기, 암벽등반 하기, 번지점프 하기, 레이스카 고속집주 하기, 산악자전거 타기, 스카이다이빙 하기, 거센 물결 속 래프팅 하기 등.

반면에 증강현실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 이 기술은 가상현실의 기술 적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신 실생활에 유용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방향성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전 포켓몬 GO 게임에서 평면의 스마트폰이지만 마치 3차원의 포켓몬을 사냥하는 느낌을 준 것은 이제 오락 수준을 넘어 교육 분야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학생들에게 공룡의 모습과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 증강현실을 구현하여 공룡세계를 체험하였다.

눈앞에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보아왔던 공룡들이 3차원으로 살아나와 학생들에게 흥미로움과 현실감으로 교육 목적을 배가시키기도 하였다.

중·고등학교 생물시간 개구리를 해부하지 않고도 영상을 통해 3차원으로 개구리 내부의 내용 및 기능을 설명하고, 이를 흥미롭게 관찰하는 풍경도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서는 실제 인체를 해부하고 각종 신체조직과 장기들을 공부했으나 이제는 증강현실을 구현하여 입체감과 현실감 있게 신체의 각 조직 및 장기 기능을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컴퓨터공학도라면 컴퓨터 속 내부를 마치 집안의 구조를 구경하듯이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겠다.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에서나 표현되었던 것이 현실이 된 셈이다.

AR이나 VR은 모두 오락, 교육, 체험 등을 아우르는 멋진 기술이다. 지금은 스마트폰의 성능, 디스플레이 기술, 5G라는 통신 환경이 상당히 발전한 단계여서 이 둘을 따로 구분 짓는 것은 무의미하여 이 두 기술이 합쳐져 구현된 환경, 혼합현실(Mixed Reality; MR)과 확장현실(Cross Reality; XR)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VR체험관에 가보아야겠다. HMD를 가볍게 머리에 착용하고, 올레길 트레킹을 하는 사람에게 로망이라는 '알프스 트레킹'을 설레는 마음으로 즐겨봐야겠다.

김민호 기자

65명 회원 건강, 취미생활 함께 하며 가족처럼 친근

“지역 업체서 매년 어르신 관광 협찬 감사”
꽃길 조성, 마을잔치 열어 주민 화합 도모



◇가족처럼 생활하는 삼마치1리 경로당 회원들이 건강한 삶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하고 있다.

홍천읍 삼마치1리 경로당은 오삼옥 회장(77세)이 김영득 부회장(83세)등과 함께 2020년 임기까지 65명의 회원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

최장수 회원은 97세의 황낙진 어르신이며, 94세의 정한순 어르신이 다음으로 최고령자이다.

경로당 기금은 1,0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입회비가 3만원이며 매월 회비가 3,000원이다.

매년 관광을 다니오는데 마을에 위치한 제일레미콘, 상지환경, 진로막걸리 등에서 협찬을 매년 해주고 있어 정말 고마운 기업들이라고 칭찬과 함께 고마움을 표시 하며 널리 자랑하고 싶단다.

작년에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참가해 정한순 어르신이 장수상도 받고, 체조부문에서 장녀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회원들이 “꿈그린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매주 진행하고 있고 “한글학교”도 매주 진행하여 회원들이 친목과 건강, 취미생활을 함께 즐기며 특히 글을 모르던 어르신들의 평생의 한인 한글공부에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계시단다.

오 회장님과 대담중에 선주섭(61세) 마을 이장이 때마침 경로당을 방문해 삼마치마을에 대한 이모저모를 얘기해 주었다.

마을인구는 245세대, 499명이며 귀농/귀촌인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마을의 주생산농작물은 찰옥수수, 고추이고 이장 본인은 4대째 토박이로 2007년부터 12년째 마을 이장일을 맡아 보고 있단다.

장수비결을 물으니 오 회장께서는 선 이장이 마을일에 솔선수범하고 착실하게 마을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여 계속 신임을 얻고 있다고 한다.

마을사업으로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해 마을 꽃길 조성을 했으며 매년 “반대향 게이트볼 대회 겸 마을잔치”를 겸한 행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진행 한다고 한다.



◇자리를 함께한 삼마치 1리 경로당 회원들.

마을회관 옆의 게이트볼장은 약 50평 규모의 인조잔디로 규모는 작지만 깔끔하게 조성되어 여타 마을의 규모는 크지만 이용률이 적은 게이트볼장에 비해 실속있고 알차게 조성,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려는 마을에서 참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원터골(6반)에 상수도 인입공사를 진행해 주민들에게 수도물을 공급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원터골은 원님이 쉬었다 갔다고 하여 원터골이라 한다고 하며 원터골 고목나무 아래에서 6반 반장이 제주가 되어 매년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마을동제도 올린다고 한다.

부녀회에서는 폐비닐 수거 등을 하여 마을기금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단다.

마을이름인 삼마치(三馬峙)의 어원은 홍천읍 원터에서 남면 상창치리로 가는 길에 위치한 고개로 홍천읍에서 제일 높은 고개로 고개가 험하여 세 마리의 말을 갈아타고 넘어 다녔다 하여 삼마치(三馬峙)라고 한다.

“해동지도”와 “1872년 지방지도”에도 ‘삼마치’와 ‘소삼마치’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홍천군지”에 의하면 옛날에 홍천군에 사는 사람들은 오음산에서 다섯 장사가 나오리라는 예언을 믿었는데 당시에 고을에 장수가 나면 재앙을 입는다고 전해져 사람들이 장수의 혈맥을 끊기 위해 오음산 능선에 쇠창을 꽂았다고 한다. 그러자 검붉은 피가 용솟음치고 다섯 개의 울음소리가 사흘 밤낮을 그치지 않더니 사흘째 저녁 무렵 주인을 잃은 백마 세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다 이 고개를 넘어 사라졌다고 한다. 그 후로 이 산을 오음산, 이 고개를 삼마치라고 한다는 전설이 전해 진다고 한다.

또한 한국전쟁때인 1951년 2월 이곳 삼마치 고개 일대에서 벌어진 중공군의 2월 대공세에 대응해 싸운 아군(국군, 네덜란드군, 미군)의 삼마치 전투(일명 오음산전투, 황성전투)는 아군과 적군이 공히 엄청난 피해를 입은 피아간에 치열했던 전투로 6.25전쟁의 상흔을 말해 주고 있다.

오 회장께서는 삼마치마을에는 “유아숲 체험장”이 조성되어 있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쉬고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이용자가 제법 많다고 자랑하시며 삼마치 약수터도 유명해 앓은뱅이가 이 물을 마시고는 서서 걸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끝으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노후되어 신축을 해야 하는데 두 부지가 모두 사유지여서 신축에 장애요소가 된다면 해결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을의 애로사항을 말씀한다.

전소열 기자 (silverhong21@naver.com)

스포츠 및 행사

수타사 산소길 걷기

“삼삼오오 단풍길 걸으며 건강에 활력소 찾아”



◇수타사 생태숲 산소길 걷기 행사에 참가한 군민들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홍천군민 단합·홍천군 발전 원동력 계기

홍천군 공작산 수타사 테마공원에서 2019년 10월 19일에 강원일보사 주관으로 홍천군민이 함께하는 수타사 생태숲 산소길 걷기 행사에 약 2,000여명이 참가하여 건강체조 운동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산소길 걷기 행사를 매년 주관하는 강원일보사에 감사를 드리며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참가자들에 바람이었으며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산소길을 걸으며 쌓여 있던 이야기와 정담을 나누며 건강에 활력소를 만끽하는 홍천군민의 모습에 더 한층 홍천군의 원동력이 아닌가 한다.

홍천 대표하는 테마공원으로 육성해야

홍천군 수타사 테마공원은 2019년 7월 3일 개장하여 농촌관광홍보관, 농공체험시설, 농특산물판매관, 십이지관,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홍천군은 공작산 생태숲과 수타사 산소길과 연계해서 많은 내방객들로 하여 농촌 테마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촌테마공원으로 프로그램이 단조롭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좋은 장점을 계

획하여 운영하는 것이 테마공원을 자리잡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홍천군 공작산 수타사는 천년 고찰로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생태숲으로 산소길을 제공하며 흐르는 계곡으로 맑고 깨끗한 옥수가 봄에는 철쭉꽃이, 가을엔 단풍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천년고찰 수타사 신도회 ‘국수공양’ 감사

천년 고찰 수타사는 신라시대 원효대사에 의해 창건되었고 용담에는 박쥐굴을 통하여 용이 승천했다는 옛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또한 수타사에서는 많은 산소길 걷기 행사에 참여한 분들과 각지에서 오신 등산객에게 국수공양으로 시장끼를 달래준 곳이기도 했다.

공작산 수타사 산소길 걷기 행사를 마치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행사가 마무리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수타사를 찾은 모든 이에게 건강과 행복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농촌 테마공원과 공작산의 수타사 홍보가 잘되어 홍천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수타사 천년 고찰과 농촌 테마공원이 되었으면 한다.

안태수 기자



게이트볼 시리즈

홍천읍 연봉 2리 홍천게이트볼 클럽... 회원 15명 활동

30년전 홍천서 첫 게이트볼장 건립

홍천 게이트볼장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2리에 소재해 있다. 홍천 게이트볼 클럽회장은 윤수동이고 회원은 15명이다. 유일하게 여회원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30년 전 홍천군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홍천1호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였다. 정부는 농촌지역 농한기 때에 도박과 음주로 보내는 것을 염려하여 각 면, 리에 게이트볼장을 건립하여 건전문화를 장려하였다.

홍천 게이트볼장 앞에는 화랑회관이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정신이 화랑정신이다. 홍천 게이트볼장은 화랑정신을 이어받아 30년 동안 끊임없이



존립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도 다지고 건강을 단련하여 왔다. 한국에 총 5등급의 무공훈장 가운데 화랑무공훈장은 4번째 무공훈장이다. 이 무공훈장은 나라를 위해 전투에 참가하여 보통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거나, 다대한 전과를 올려 그 공적이 뚜렷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이다. 그렇기에 화랑의 기상을 이어받은 홍천 게이트볼클럽은 다수의 수상을 해왔으며 그 어느 게이트볼클럽보다도 기개가 드높다.

홍천강이 흘러가는 강 유역에 있는 홍천 게이트볼장은 홍천의 자랑이고 기상이다. 뒤에 송학정은 소나무 위에서 학이 울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변함없는 홍천의 기상이다. 홍천 게이트볼장 회원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조기 게이트볼 연습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화랑정신으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해본다.

이광명 기자



문화행사

홍천문인협회 해가람 시낭송 공연을 찾아서

친근한 시 한편 들으며 눈물 ‘찼끔’ 감동 ‘한아름’



◇해가람 시낭송회 동아리 회원들이 개최한 시낭송회가 지난 10월 19일 홍천문화원 강당에서 열려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12명 회원 주 1회 연습 작년 이어 두 번째 개최 표현 두려움 사라지는 시낭송 누구나 도전 가능

해가람 시낭송 동아리

해가람 시낭송 동아리 회원들의 주축으로 초대 시낭송가들과 함께 10월 19일 문화원 강당에서 공연을 가졌다. 해가람의 어원은 해와 강이라는 뜻으로 영원성을 의미한다. 작년 5월 14일 동아리 회원 12명으로 창설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의 공연을 가졌다.

시낭송을 사랑하는 동아리회원들의 열정으로 짧은 기간의 학습이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시낭송에 관심을 가졌으며 문화예술의 향유를 같이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한 고무적인 행사였다.

해가람 시낭송 동아리 활동

12명으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은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학습에 열중하고 있다. 낭송을 사랑하는 회원들의 열정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수업을 해오고 있다.

낭송에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동참하여 시낭송의 발표회나 공연을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인근 시군인 횡성의 시낭송 공연에 참가해 인상이 깊었던 것은 80세가 넘는 나이가 많은 연령대의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구성지게 낭송을 할 때면 연령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마음껏 낭송의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시낭송을 잘하려면

시낭송을 잘하려면 시낭송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논어 옹야편에 지지자(知之者)는 불여 호지자(不如好之者)요. 호지자(好之者)는 불여 낙지자(不如樂之者)니라 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고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낭송을 즐기며 다음 몇 가지 참고하면 낭송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낱말 하나하나 바른 소리와 높낮이와 길고 짧음이 정확해야 한다. 마음의 악보를 만들어야 한다. 자연스러워야 한다. 예의가 있어야 한다.

시인의 시를 빌려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

래로 만들어야 한다. 확신을 갖고 낭송에 임해야 한다. 낭송을 할 때 두려움 없이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반복된 연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만 갖추면 낭송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시낭송 효과

시낭송의 효과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낭송가가 작가의 시를 육화시켜 다중의 청자들에게 동시에 감동과 감흥을 주는 문화 예술의 한 영역이라고 본다. 낭송가가 낭송할 시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해석해 낭송을 함으로써 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멜로디를 감상하는 것이다.

소리 내어 읽고 남들 앞에서 낭송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표현하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 시낭송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시 치유라는 영역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발전하고 있다. 다양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는 시낭송은 분명 매력있는 분야일 것이다.

시낭송은 병든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어둡고 우울한 마음속의 에너지들을 밖으로 표출해 활기와 자신감을 되찾게 하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계기로 주어지며 활기찬 자신의 변모를 느끼게 될 것이다.

김정현 기자



자원봉사단체 소개

홍천군새마을지도자 서면협의회

하천 정화, 독거 어르신 집 청소, 물품 후원 앞장



◇홍천군새마을지도자 서면협의회 회원들은 독거 어르신에게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가족처럼 돌보고 있다.

370명 회원 이웃사랑 실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회원 의기투합 어떤 일도 척척 해결 칭송 자자

홍천군새마을지도자 서면협의회는 협의회장(유용석), 협의회부녀회장(이청자)이 이끌어 가고 있는 단체로 홍천군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장(박순옥)도 서면출신이다.

서면에는 17개의 리가 있는데 각 리마다 지도자와 부녀회장이 있다. 총 36명의 지도자와 부녀회장, 37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형 단체이다.

서면협의회에서는 하천 정화활동과 독거어르신 집 청소, 물품후원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마다 홍천 관내 복지기관의 식당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김장을 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에 후원품과 함께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있다. 올해도 서면사무소(면장 조병호)와 함께 지난 10월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2019 이웃사랑실천 사랑의 김장·쌀 나눔운동'을 진행하였다. 김장김치는 통합사례 관리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도움의 손

길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었다.

서면협의회 부녀회장 이청자(61)씨는 한백봉사회 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각종 면 행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 어르신 경로잔치에서는 700여 명의 점심식사를 회원들과 직접 준비해 대접하기도 하였다.

지역 특성상 대부분의 지도자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번기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생기면 회원 모두가 의기투합한다.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회원들을 보면 더욱 숭선수범 하게 된다고 하였다.

든든한 일꾼들이 모여 있는 서면협의회는 회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생동하고 있었다. 그 어떤 불평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베풀며 지역을 지켜내고 있는 그들이 있어 든든하다.

홍천군 서면은 북쪽으로 춘천시, 서쪽과 남쪽으로는 경기도 가평군과 양평군이 접해 있어 홍천군



◇점심 식사 제공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서면협의회 회원들.

10개 읍·면 중 수도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한서 남궁 익 선생의 일이 담긴 무궁화의 성지로 한서남궁익기념관, 한서남궁익묘역이 자리하고 있으며, 대명비발디파크와 팔봉산이 있다. 다양한 보고 즐길 거리가 있어 한번쯤 찾아보기를 추천한다.

사회복지사 정은지

독자칼럼**이 세 현**

전 춘천시 경제인연합회장

어느덧 날씨가 조석으로 쌀쌀함을 더하는 만추(晩秋)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산야에는 울긋불긋 색조가 드리워지고 들녘 농부들 손길은 가을걷이로 바빠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어느 해 보다도 풍요의 기쁨을 누리기에 농심의 상처가 크다. 연이은 세 번의 태풍으로 많은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가져왔다.

바다에 가두리 양식장은 초토화되었고 수도 작과 과수농사 비닐하우스 시설재배 등 어느 하나 피해를 비켜가지 못했다. 우리 강원도 역시 김장배추가 뿌리썩음병 등으로 작황이 그리 좋지 못하다. 그런데다가 업친데 덮친격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양돈농가들의 시름이 크다. 또 철새가 하나 둘 도래하면서 AI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있었다.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위정자들의 행태도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을 잃게 하고 있다. 어느 하나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려 위로할 뉴스가 없다. 제발 국민들의 민의

를 하나로 결집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명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어떠한 어느 나라고 농업은 경시할 수 없는 국민의 먹거리의 원천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해가 다르게 변해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제 피해 갈라야 피해갈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올해 같은 태풍피해는 연례적인 피해로 다가올 공산이 크다.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기후변화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메가 트렌드로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피부로 실감할 정도로 나

본 로드맵'을 통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기후변화의 리스크는 농축산분야에 분명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적응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경제성이나 생산성면에서 기존의 관행기술보다 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단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또한 문제는 농촌의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 위성도시로 젊은 인력이 빠져 나가는 블랙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농촌에 매료될 수 있는

자와 소비자의 원활한 수요와 공급을 꾀하고 있다. 잉여 농산물은 정부가 수매 비축하여 공공복지처와 해외로 수출하므로 농산물 소비를 이룰 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과잉생산이 되면 산지 폐기처분하고 정부에서는 처분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또 농산물 작황이 안 좋으면 가격폭등으로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포도주와 올리브유가 주요 농특산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대표 농산물이 없는 것도 아쉽다. 이탈리아는 로컬 푸드가 활성화되고 있다. 로컬 푸드란? 내 고장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말하는데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한다. 유통과정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시키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농산물 유통시스템의 하나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북 완주군에서 2008년 국내최초로 로컬 푸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찍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에서 공공급식, 직거래장터,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로컬 푸드 소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잘 맞는 농정으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제 날씨는 더욱 쌀쌀해 질 것이다. 여름내 땀 흘려 수고한 농심에 찬사를 보내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필을 놓는다.

우리 농정(農政)이대로 좋은가?

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5℃ 상승하였고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며 봄꽃 개화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결과 농작물의 재배적지가 변동하고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는 등 농업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분의 영향에 관한 과학적인 진단과 경제적인 분석은 농업 미래비전 및 농정 방향설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농업분야 연구 석학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필자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에서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

농업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특색에 맞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선진화된 농법으로 농촌에서도 땀 흘려 수고하면 수고에 상응하는 가치창출이 될 때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음식문화가 비슷한 이탈리아도 55세 이상의 농민이 전체 농민의 65%로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농업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하기에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3번째 아이를 출산하면 나라에서 농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당근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농산물 쿠퍼제를 시행하므로 농산물 공급을 수요에 맞추고 조절하는 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이 너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일을 방지하여 생산

인생칼럼**석 도 익**

소설가

어릴 때의 기억은 오래가지만 늙어서의 기억은 방금 한 일도, 금방 생각했던 것도 깜빡 잊어 버리기 일쑤다. 외출 한 번 하려고 해도 집안을 몇 번을 들락날락 해야 챙길 물건 챙기고 나서 이젠 댔지 하며, 차에 탔으나 아차 한다. 자동차 열쇠를 안가지고 나온 것을 그때야 알고는 다시 집에 들어가서 열쇠를 찾는다. 나이로 보아서는 치매증상이 아닐까 하면서도 아직은 그건 너무하다 싶어 건망증이려니 하며

얼버무리고 사는데, 이는 꼭 노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나 아이들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단다.

노인들이 깜빡깜빡 하는 것은 혹은 치매증상이 아니야? 하는 거고 “내가 깜빡 했었다” 하며 면구스럽게 뒷머리를 긁을 수 있고, 젊은 사람이 똑똑치 못하고 멍하게 잊어버린다면, 바쁘게 일하다 보면 그럴

도입하면서 국민들에게 가끔은 웃는 재미를 보여주고 있다. 나라의 공간열쇠를 맡길 고위직을 임명하기 위하여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여, 이 사람이 정말 나라의 열쇠를 맡길 만한 인물인지 검증하는 제도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요즘 임명권자는 누가 뭐라 해도 직권으

모른다. 잊었다라고 얼버무린다. 한마디로 아이들 식으로 말하면 까먹었다.

그들은 그렇게 무엇이든 잘 먹고 많이 먹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식성이 좋으니 기억도 까먹었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껌질까지 다 먹어야 근거가 없어지는데 껌질을 벗기고 먹었으니 그 껌질을 찾아내면, 모든 내용이 다 밝혀질 일인데도 이들은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것 같다.

전지전능한 신은 세상을 관리할 인간에게는 특혜를 주어 약삭빠르게 살아가게 했을 것이다. 사람의 좋은 머리는 낚시에 미끼를 달아 물고기도 잡고, 짐승도 먹을 것으로 유인해 잡았으며, 사람이 사람을 보이스피싱의 미끼를 이용해 사기를 치기까지 한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욕심을 이용하고 먹이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먹는 것을 게걸스럽게 탐하다 보면 위험하다는 것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란 것도, 까먹게 되기 때문이다.

“식성이 좋으면 다 까먹는다.”

식성이 좋으면 다 까먹는다

수도 있겠지 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생각하다 까먹었다” 하고 애교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다.

잊었다는 말은 기억했던 것을 잃었다는 말이고, 까먹었다는 것은 기억해 두었던 것을 껌질을 벗기고 안에 내용물은 먹어버렸으니 없다는 말이 된다. 여기서 전자의 기억은 정신이고, 후자의 기억에 일부는 물질로 변한 말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인사청문회법을

로 임명하는데 뭐 하러 인사청문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국민들은 그에 대한 사람됨을 청문회를 통해서 알려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에 나쁘지는 않다.

인사청문회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거론되는 것은 먹을 것을 탐내고 욕심내다가 도를 넘어 축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다. 또한 이들은 검증과정에서는 자기가 불리한 질문에는 생각이 안 난다.